죽음 앞에서 보여준 어머니의 마음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⑰ 불설녹모경(佛說鹿母經)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절절해진다. 부모님의 은혜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불설부모은중경〉이 잘 알려져 있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부모은난보경〉이 대표경전이다. 부처님은 오백 번의 생을 사시면서 선업을 많이 쌓아 그 공덕으로 부처님이 되었다. 부처님의 전생 중에서 부모의 마음이 잘 나타낸 〈불설녹모경〉은 사람의 부모이야기가 아니다. 축생의 삶을 통해 살생하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 한 나라에 사냥금지령을 내리도록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일본 동대사에 가면 절 앞마당에 사슴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닌다. 절 앞에 사슴을 왜 기를까? 아마도 부처님의 첫 설법지가 녹야원, 사슴동산이라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찰에서 받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불설녹모경〉 영향도 있다. 그런데 동대사는 이 사슴 때문에 대불전 뒤의 멋진 사찰풍광을 못보고 사슴구경하다가 바쁘게 떠나는 것을 보면 참 아쉽다. 〈불설녹모경〉은 축법호가 번역하여 한글대장경 195책 〈해탈도론〉 p488에 수록돼 있다. 부처님을 대표하는 정체성은 자비다. 이 경에서 그 자비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다.

부처님이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나 수백 마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며 좋은 풀이 많은 곳을 찾아 떠돌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내려왔다. 마침 국왕이 그 곳으로 사냥을 나오자 사슴들은 놀라 각기 다 흩어져 버렸다. 임신한 사슴 한 마리가 도망가다 지쳐 쓰러진 채 새끼를 낳았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새끼를 두고 잠깐 자리를 떴다가 그만 사냥꾼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어미 사슴은 눈물을 흘리며 새끼 사슴을 걱정하여 잠시 풀어주면 새끼들에게 살아가는 법만 알려주고 다시 돌아와 죽겠노라고 애원한다. 사냥꾼은 사슴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는 매우 놀랐지만 왕에게 사슴을 사냥에 성공한 것을 보여주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사슴의 애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어미사슴은 무릎을 꿇고 다시 간절하게 애원했다.

"저의 부탁을 들어주면 새끼들이 살고, 저를 붙잡아 두면 새끼들이 죽습니다.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별할 시간이라도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저는 새끼들에게 당부할 말을남기고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와 죽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사냥꾼은 기가 막혔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없다. 사람도 신의를 지키지 않는데 내가 너를 놓아주었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낭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대여, 비록 이 몸은 미천한 축생이어서 사람의 올바른 삶을 알지는 못하나 어찌 자애로운 은혜를 받고서 모른 척 할리 있겠습니까? 차라리 온 몸이 갈가리 찢기는 고통을 받을지언정 거짓말로 살기를 원하진 않겠습니다. 배고픈 새끼가 너무 안타까워 저 대로 두면 굶어죽으니 잠깐 시간을 주시면 살아가는 방법만 일러주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냥꾼은 도저히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어미사슴을 풀어준다. 그리고 몰래 따라가 어미사슴이 새끼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찬찬히 가르치더니 드디어 울며불며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냥꾼도 눈물을 흘렸다. 사냥꾼이 서둘러 돌아와 나무아래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어미사슴이 사냥꾼을 흔들어 깨우며 신의를 지켜 돌아왔음을 알렸다. 사냥꾼은 그 길로 왕에게 가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 하니 왕이 사슴을 풀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나라 국민이 이 일을 듣고 사슴의 어진 행동에 모두 감동하자 왕은 드디어 사냥금지 국가임을 선포했다. 부처님이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아난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한 말씀하신다.

"그 때 사슴이 나였단다. 두 새끼는 라훌라와 나한주리모이고, 국왕은 사리불, 사냥꾼은 바로 너란다. 비록 축생의 몸이었지만 우리는 보살의 마음을 잊지 않고 방편을 써서 중생을 이롭게 인도하였고 다시 또 이렇게 만났다."

〈서울 반야사 주지〉

깨닫는 불교는 기복불교와 다르지 않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⑯ 〈금강경〉으로 이루는 소원

"그렇다. 너는 부처님과 같이 매우 위대한 존재인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경험한 행(幸), 불행(不幸)이 모두 네가 불러온 것이라 생각지 않겠지만, 실은 모든 고난과 행복은 다 네가 불러온 결과인 것이요 네 뜻대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왜냐하면 너는 부처님처럼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이기에 시시각각으로 네 소원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열등하다는 마음, 아니 된다는 분별심을 부처님께 다 바쳐라. 그리하면 열등하다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바로 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아니 된다는 마음이 사실인줄 알고 있으면 네 일은 아니되는 쪽으로 전개 되는 것이고, 아니된다는 사실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 없어지면 네 일은 아니 될 일 없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지식의 말씀에 정신이 나면서 나는 〈금강경〉 공부를 통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나처럼 변덕스럽고 끈기있게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이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금강경 공부를 처음에는 신들린 듯 좋아하다가 얼마 안가서 그만두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희망이 차고 기쁨이 솟아올라 당장이라도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여 제 소원을 당장이라도 이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잠시 후에는 마음속에 제가 무슨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아니니 어찌 이 큰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는 스스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너는 너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였다. 네가 성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fact)이냐? 또는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단순히 네 생각일 뿐이냐?"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 겸손한 생각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fact)입니다."

"아니다. 너는 열등하지 아니하다. 네가 스스로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기에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일 뿐 너는 정말 못난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가 잘 안 된다. 능력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금강경 사구게 즉 모든 생각은 다 착각이다(범소유상 개시허망)라는 말씀처럼 착각인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 공부가 잘 안 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은 착각인 줄 알아야 한다. 안된다 못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줄 알고 그 생각을 정성껏 부처님께 바쳐라. 바치다 보면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며, 공부를 못한다는 열등한 생각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능한 저도 변하여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겠네요?"

"당연한 말이다. 안 된다는 생각, 열등하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줄 알고 부지런히 부처님께 바칠 때, 안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며 너는 능력자로 변할 것이다."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면 제 소원은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소원을 성취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깨치는 가르침이라 하는데요?"

"상당수의 불자들은 깨친다하면 참나를 발견하는 깨침 즉 아상이라는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창한 깨침만 생각한다. 그러나 깨침이란 분별심이 사라지므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이루는 현상인 것이다. 작은 분별심이 소멸되면 작은 깨침이 되며 작은 지혜를 이루고 작은 능력(소원)을 이루는 것이요, 큰 분별심이 소멸되면 큰 깨침이 되며 큰 지혜를 이루고 무한한 능력을 구족하게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의 눈에는 기복불교와 깨달음의 불교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깨달음과 기복의 갈등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만법 이루는 진여실상은 불변하다

양무제가 일찍이 가사(袈裟)를 입고 〈방광반야경〉을 몸소 강설 했는데, 감응해 하늘서 꽃비가 내리며, 땅이 황금으로 변했고, 도교를 물리치고 천하에 사찰을 개창해 승려를 장려하고

탑을 세워 불심천자라 불리웠다. 이렇게 천하제일이라는 아만심으로 가득찬 양무제가 달마선사에게 물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습니까? "소무공덕(小無功德), 조그만한 공덕도 없습니다"

내가 했다는 아상 속에서 행한 것은 복은 될지언정 공덕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본심(本心)은 무심(無心)이고 진공(眞空)이니, 텅빈 무심에서 무주(無住) 무상(無相)으로 보시(普施)해야 진공덕(眞功德)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복 짓는 것을 수행의 과로 생각하지만, 복짓는데 일생을 보내고, 복을 지었으니 육도 안에 있는 천상서 복을 누리는데 일생을 보내고, 다 누렸으면 전생에 지은 업(業)에 따라 윤회의 굴레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니, 복은 삼생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다.

언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활구 참선법 '이 뭣고'를 만나 다생겁래로 익숙한 타향살이를 면하고 내가 나를 깨달아서, 자신이 본래 갖춘 부처님 성품을 꿰뚫어 영원한 진리와 하나가 되고, 생사에 자유자재한 경지에 들어가는 참된 공덕을 이루겠는가?

"일체 유위법은 본래 진실된 모양이 없으니 저 모양 가운데 실상이 없는 줄을 알면 곧 이름하여 견성(見性)이라 하니라"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성(聖)스러운 진리(眞理)입니까?

"확연무성(廓然無聖)이라,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하고 너무나도 확연해서 성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짐 앞에 앉아있는 당신은 누구요? "불식(不識), 모릅니다"

범부(凡夫)의 지견(知見)으로 성인(聖人)의 진리(眞理)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眼目)을 갖추지 못한 양무제에게는 다만 모르고 모를 뿐이다.

인연따라 생멸 변화하는 일체의 사물은 허망(虛妄)한 인연이 화합해 마치 꿈, 환처럼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이 모두가 실체성이 없는 것인데, 중생들은 눈앞의 온갖 현상을 실유로 오인해 분별하고 집착함으로써 세간의 모습이 '있음'이 된 것이다.

성수 선사가 혜월 선사를 찾아가 여쭈었다. "삼세의 모든 제불과 역대조사는 어느 곳에서 안심입명 하고 계십니까? 이에 혜월 선사께서 양구(良久), 입을 다물고 계시니 성수 선사께서 냅다 한 대 옆구리를 치시면서, "산용 활용이 어찌해 죽은 물에 잠겨 있습니까?" "그럼 너는 어찌 하겠느냐?"

성수 스님이 불자를 들어 보이시니 혜월 선사께서 "아니다"고 하시니, 성수 스님께서 다시 "스님 기러기가 창문 앞을 날아간 지 이미 오래입니다"하며, 이미 깨우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 주시니, 혜월 선사께서 한바탕 크게 웃으시며 "내 너를 속일 수가 없구나"고 하시며 인가 하시고, 호를 운봉(雲峰)으로 부르고 전법게를 내리셨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본무진실상(本無眞實相) 어상약무상(於相若無相) 즉명위견성(卽鳴爲見性). "일체의 유위법은 본래 진실된 모양이 없으니 저 모양 가운데 실상이 없는 줄을 알면 곧 이름하여 견성(見性)이라 하니라"고 하셨다.

진여실상은 불변(不變)이다. 이 진리가 수연해 만법을 이루는 것이다. 일체 유위법은 꿈속에 있는 허상인 것이며, '시심마 이 뭣고' 수행으로 꿈을 깬 실상 자리인 시(是)에는 본래 생사가 없는 내 고향인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USB내장)』 셋트로
단160만원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